정치하는엄마들 www.politicalmamas.kr	논평		
	보도일시	2020. 01. 08. 수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20. 01. 08. 수	총 5매 (별첨 2건)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정치하는엄마들이 해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예산 1천억 확보
급간식비 최저기준 23년 만에 인상 <2020 보육사업안내>에 명시

△ 보건복지부,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인상. 1997년 이후 23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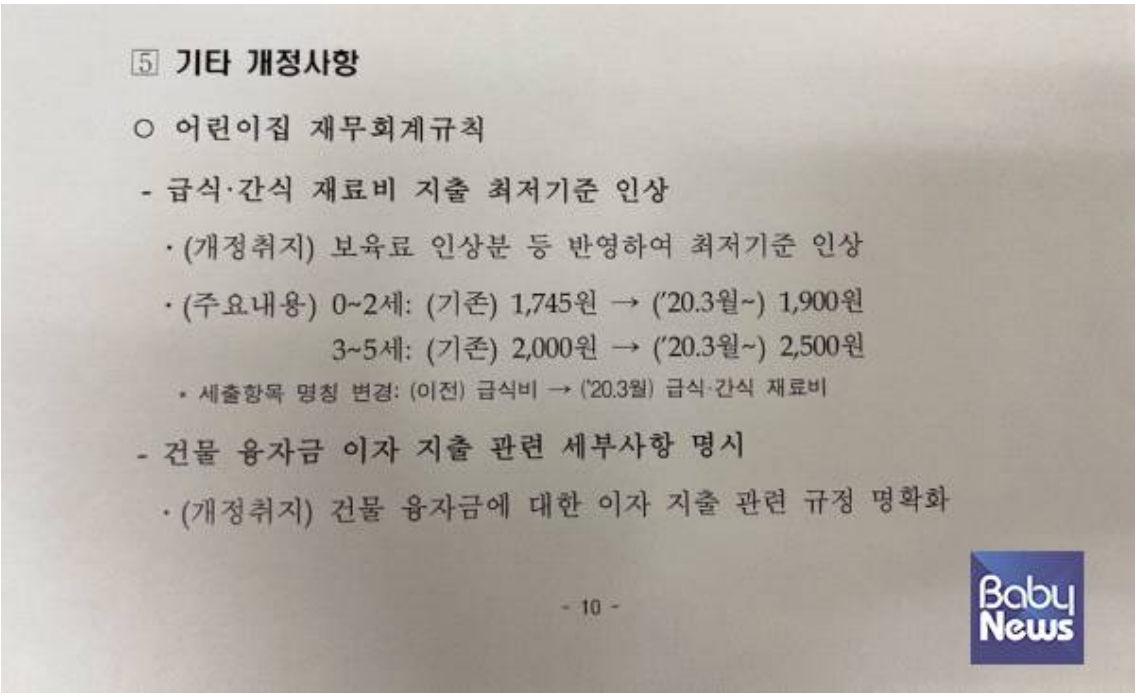
△ 만 0~2세 1745원에서 1900원으로 155원 인상, 만 3~5세 2000원에서 2500원으로 500원 인상

△ 정치하는엄마들 1년 간 캠페인 벌인 결과 관련 예산 1천억 확보

△ 증액된 1천억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려면, 실효성 있는 급식모니터링 제도 마련 시급

어제(7일) <베이비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각 지자체와 보육관련 기관 및 연합회에 발송한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설명 자료에 급간식비 기준 인상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211)

2020년 3월부터 적용되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최저기준은 만 0~2세 1745원→1900원, 만 3~5세 2000원→2500원으로 1997년 이후 22년간 동결되다 23년 만에 비로소 인상된 것으로, 이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1년 간 캠페인을 지속한 결과다.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정치하는엄마들이 해냈다!


5 기타 개정사항

○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 급식·간식 재료비 지출 최저기준 인상

· (개정취지) 보육료 인상분 등 반영하여 최저기준 인상

· (주요내용) 0~2세: (기존) 1,745원 → ('20.3월~) 1,900원

3~5세: (기존) 2,000원 → ('20.3월~) 2,500원

· 세출항목 명칭 변경: (이전) 급식비 → ('20.3월) 급식·간식 재료비

- 건물 융자금 이자 지출 관련 세부사항 명시

· (개정취지) 건물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출 관련 규정 명확화

- 10 -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설명 자료 중 급간식비 최저기준 인상 부분 ©베이비뉴스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3) 급식비(315목)

가. 적용범위

○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간식비

* 복리후생비(216목)의'급량비'는 보육교직원의 야간근무 시 소요되는 경비로 구분

나. 일반사항

○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아동 1인당 적정수준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 이는 최소 1,745원 이상으로 시·군·구에서 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다만,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반(독립반, 혼합반 모두 포함)의 경우 2,000원 이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이는 누리과정 실시에 따른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비율 및 보육료 이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에 따른 조치임

- 위의 비용은 조리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식재료만을 의미하는 것임(인건비 및 수용비 등은 별도)

○ 급식은 어린이집 내에서 직접 조리하되 불가피할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마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으로부터 급식비를 받는 경우에는 세입처리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56쪽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중 세출항목 > 급식비 부분

이번 기준 인상으로 어린이집 재원아동들에게 전달되는 급간식비 예산 증가분은 최소 1천억 원에 달한다.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의 내용을 보면 누리과정(만 3~5세) 급간식비 기준 2000원은 노력조항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공립을 제외한 보육현장에서는 누리과정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1745원을 적용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점을 반영해서 계산하면 예산 증가분은 약 1350억에 이른다.

만 0~2세 : 843,764명 * 155원(1900원-1745원) * 240일 = 31,388,020,800원
만 3~5세 : 571,978명 * 500원(2500원-2000원) * 240일 = 68,637,36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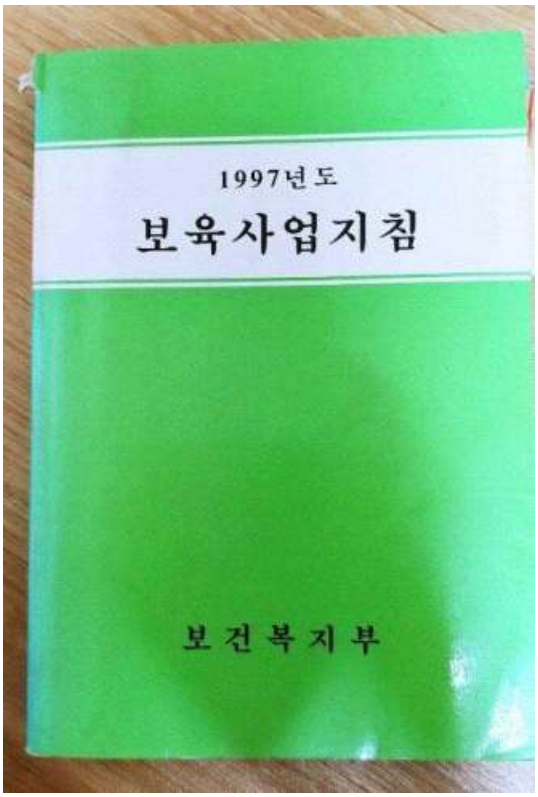
계 100,025,380,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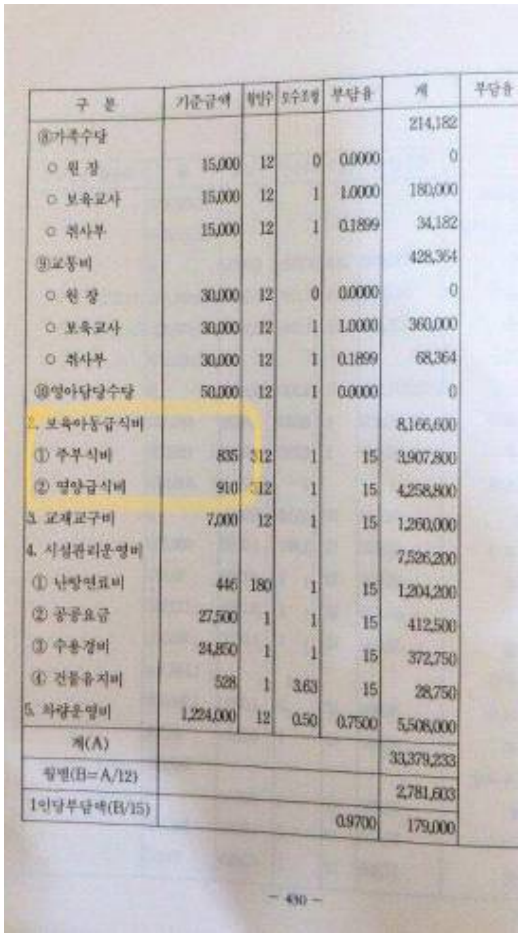
만 0~2세 : 843,764명 * 155원(1900원-1745원) * 240일 = 31,388,020,800원
만 3~5세 : 571,978명 * 755원(2500원-1745원) * 240일 = 103,642,413,600원

계 135,030,434,400원

※ 어린이집 재원아동수는 <2018 보육통계>에 따름

정치하는엄마들 정책소모임인 급식팀은 작년 초 <베이비뉴스> 보도를 통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최저기준이 1745원이라는 사실을 접하자마자 바로 해당 캠페인에 돌입했다. 요즘 물가에 단돈 1745원으로 점심급식 및 오전·오후 간식을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무엇보다 이 기준을 22년째 동결하고 있는 복지부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했기 때문이다.





구 분	기준금액	월인수	보수조정	부담율	계	부담율
⑧가족수당					214,182	
○ 원 장	15,000	12	0	0.0000	0	
○ 보육교사	15,000	12	1	1.0000	180,000	
○ 취사부	15,000	12	1	0.1899	34,182	
⑨교통비					428,364	
○ 원 장	30,000	12	0	0.0000	0	
○ 보육교사	30,000	12	1	1.0000	360,000	
○ 취사부	30,000	12	1	0.1899	68,364	
⑩영아담당수당	50,000	12	1	0.0000	0	
2. 보육아동급식비					8,166,600	
① 주부식비	835	312	1	15	3,907,800	
② 영양급식비	910	312	1	15	4,258,800	
3. 교재교구비	7,000	12	1	15	1,260,000	
4. 시설관리운영비					7,526,200	
① 난방연료비	446	180	1	15	1,204,200	
② 공공요금	27,500	1	1	15	412,500	
③ 수용경비	24,850	1	1	15	372,750	
④ 건물유지비	528	1	3.63	15	28,750	
5. 차량운영비	1,224,000	12	0.50	0.7500	5,508,000	
계(A)					33,379,233	
월별(B=A/12)					2,781,603	
1인당부담액(B/15)				0.9700	179,000	

— 430 —

<1997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보육아동급식비 부분, 주부식비(835원)와 영양급식비(910원)을 더한 보육아동급식비 1745원이다.

정치하는엄마들 급식팀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수조사 한 결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별 급간식비 지원금은 0원에서 1190원까지 천차만별이고, 지원금인 0원이 지자체는 전체의 약 3분의 1인 81곳에 달한다. 또한 전국 300여 공공기관 내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최하가 3000원선이고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3862원, 청와대 어린이집 3800원, 국회 어린이집 3800원, 서울시청 어린이집 6391원 등 아이들 밥값을 22년째 동결하면서 공무원 자녀들의 밥값은 2~3배 이상 인상해 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급식팀은 이번 주 중에 2020년도 지자체별 급간식비 지원금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참조)

급식팀 뿐 아니라 정치하는엄마들 회원 1800여명이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 및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날마다 전화·문자메세지로 급간식비 예산 증액을 촉구하여 이뤄낸 성과이기도 하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스팸 넣지 마세요. 계속하면 더 삭감 하겠습

니다.’ 라는 문자메세지를 회원들에게 보낸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이러한 회원들의 노력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낳았다.

2019년 5월 2일 광화문 광장 기자회견 <어린이날 외식 말고 급식을 선물하자>, 7월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 <아이들은 배고프다! 국회는 차별 없는 급식 보장하라>, 9월 6일 63빌딩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기습시위 <복지부 장관님 밥이 넘어 갑니까?>, 12월 10일 국회 앞 기자회견 <급식차별 방치한 정부-국회는 사죄하라!> 등 정치하는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이 처한 급식차별, 식판양극화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계란을 던져봐야 아는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정치혐오 또는 정치팬덤을 넘어서 ‘당사자 정치’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또 한 번 보여주었다. 내 아이, 내 새끼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해 행동했고, 이것이 바로 정치하는엄마들이 말하는 집단 모성·사회적 모성이다. ‘모성’을 생식적 어머니와 분리하여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함께 돌봄과 살림을 수행해야 한다고 정치하는엄마들은 주장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제 전국 140만 어린이집 재원아동 모두에게 매년 1천억 원의 급식·간식을 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당사자 정치’라는 값진 유산을 아이들에게 남기게 되었다. (정치하는엄마들 유튜브 채널 [하마TV] 정치하는엄마들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인상! www.youtu.be/n6j_2-jwxBw)

이제 복지부와 지자체는 아이들 밥 값 1천억이 고스란히 식판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할 것이다. 2015년부터 복지부가 운영 중인 ‘부모 모니터링단’은 방문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기 때문에 실효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양육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상시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급식 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해서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까지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인상된 급간식비 기준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결코 아니다. 어린이집 급식의 양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한지 몰라도,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급간식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2021년도 최저기준 인상까지 변함없이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월 8일
정치하는엄마들